

도내 10개 대학, 벽 허물고 힘 모아

전북대·전주대 등 전북도와 협약 체결 글로벌30 본 지정 위해 대학 간 상생 방안 모색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전북도 간 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본 지정을 위해 지역 대학들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10개 대학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대, 군산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교대, 전주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등 10개 대학은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글로벌대학30 육성을 위한 전북지역 대학전라북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본 지정을 위해 지역 대학들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대학 간 벽 허물기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실행계획에 담았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 시설 등 우수 인프라를 전북지역 대학에 전면 개방하고, 글로벌대학30 사업 본 지정 시 지원되는 예산을 지역 대학 간 공유 인프라 구축이나 공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저점 대학산업 도시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도 이들 전북지역 대학들과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 전북대 등 10개 대학은 교수

와 학생 연구 인력 등을 교류하고, 점진적 학사교류를 통한 학점도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육콘텐츠를 공동 개발·운영하고,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과 기자재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재정 지원사업에 긴밀히 대응하고, 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분야도 발굴하고 수행한다.

끝으로 전북도는 대학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전략 산업분야 인재양성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전북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의

본 지정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재 46만명 수준인 대학 입학자원이 20년 뒤에는 26만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세발 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우선 전북대의 글로벌대학 선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지역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대학의 혁신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 민선8기 동안 이뤄낸 지역과 대학의 파트너십을

더욱 탄탄히 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고, 지역이 다시 대학에 부응하는 가장 모범적인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전북대학교는 지역 유일의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 역량을 아낌없이 지역 대학들과 공유해, 지역의 대학들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플래그십대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농업에 대한 6가지 이야기'

전주대 최규홍 교수, 도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간



전주대학교 최규홍(농식품경영학과·사진) 교수가 교양 도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 32년간 농촌진흥청에서의 연구 경험과 그간 대학에서 5년간 교양 강좌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해 실었다.

이 책은 총 6장(300쪽)으로 구성, '지속 가능한 농업',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술', '디지털 시대와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와 우리 농업', '블루푸드, 물 이야기', '생명의 근원 흙' 등 6개 주제를 다뤘다.

최규홍 교수는 "오늘날 먹거리가 풍족하기에 농업에 관심이 없다. 더욱이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졌고, 산업으로서 매력도 떨어져 안타깝다"면서 "다행히도 최근 우리나라와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교수는 이 책에서 농업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의 새로운 가치 조명과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식량부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물 부족, 토양 오염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25~27일 전주대 '대동제'

전주대학교 제50대 SIGNAL 총학생회(회장 배지훈)는 25~27일 3일간 대운동장 및 학생회관 일대에서 대동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이 축제는 가치 있는 소리 소통하는 우리 JIU-WORLD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진행된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학 축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라마켓, 제기차기 및 투호 던지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또 3일 차 저녁에는 유명 트로트 가수 박현빈을 초대했다.

배지훈 총학생회장은 "이번 축제는 전주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대학 축제를 지역과 함께하겠다"고 생각하며 기획한 축제 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행복가족 ON! 따뜻한 밥상'

도교육청, 추석 맞아 저소득 가정 학생에 지원금 지급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도내 1만 9,000여 명의 학생에게 명절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추석을 맞아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된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 학생에

연간 총 12만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사업이다.

따뜻한 밥상 지원금은 생일이 있는 달에 생일 축하 지원금 4만원, 설과 추석에 명절맞이 지원금 각 4만원씩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이 지원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 교육

급여 계좌로 1인당 4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설 명절에는 2022년 교육급여를 받은 학생 2만여 명에게 처음으로 명절 지원금이 지급됐다.

또한, 9월 생일 축하 지원금 대상 2,000여 명에게도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생일과 명절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추석을 맞아 전북 학생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지난 22일 다목적 소극장인 연화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연화관 개관

공연예술 연수시설로 활용

전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22일 다목적 소극장인 연화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숙 교육국장, 김명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한정수 도의원, 김경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연화관은 74억4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면적 985.38㎡로 지상 1층, 250석의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최첨단 음향·방송 장비 및 조명 시설을 갖춘 공연장과 연습실, 대기실 등이 있다.

연화관 명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연화관에서는 문·예·체 직무연수, 사례동행 인문학 직무연수, 골라보는 장바구니 테마별 직무연수·인문공강, 감상예술, 주제가 있는 One Day 직무연수, 자격연수(8과정) 및 직무연수(16과정)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병기 원장은 "공연예술시설을 갖춘 다목적 소극장 증축을 통해 교육연수 과정 및 예술공연 분야 교과목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우수학교 현장 연수

함열여고·원광고·영생고 등 15개 학교 업무담당자 49명 대상

온·오프라인 연계 사용자 참여 기반 학점제형 공간 조성 역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2일, 15개 학교 업무담당자 49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우수학교 현장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사용자 참여 설계 중심의 공간 조성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선진 사례 공유를 통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을 내실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 및 온·오프라인 연계 사용자 참여 기반의 학점제형 공간 조성에 역점을 뒀다.

이날 △함열여자고등학교는 사용자 참여 설계 교사 IT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학교 공간 조성 사례 제시 △원광고등학교는 사용자 참여 설계

등이리 구성과 운영, 공간 활용 수업의 사례 △영생고등학교는 축진자설계, 설계검토, 일일감동 행정처리 사례를 공유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학교 공간 조성 우수학교 현장 연수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교육과정과 학습공간을 연계한 학교 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학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호남지역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23일 교내 체육관에서 '2024학년도 호남지역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호남권에 있는 전문대학 17개교와 타 지역 전문대학 1개교가 참가했다. 이날 대학들은 박람회를 방문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진학 상담을 1대 1로 진행하며, 일부 대학을 제외한 현장 접수 시 입학전형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전주기전대학 관계자는 "호남지역 수험생들이 전문대학 입학 관계자에게 각 대학의 학과·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청년 스타트업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전북대, 정책포럼 마련

제3차 과학기술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포럼이 지난 21일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열렸다.

전북대학교 사회경제연구센터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주시 사회적경제정책연구회,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청년스타트업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따르면 이 포럼은 한국과중의 지역과학기술 문제해결사업 공모과제로, 전라북도 대표 과제로 선정돼 전북대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지



역 내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관련 생태계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과중 전북연합회 양문식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는 (주)디딤스토리 김창영 본부장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발제했고, Plabo 박성걸 대표의 '기술창업이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연주 팀장이 '청년 start-up의 사

회적 경제 기업 설립방법과 절차'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전석진 전북도 사회적기업협의 회장, 전주시 김혜숙 사회적경제과장, 오성현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 후원회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가 청년창업육성과 사회적 경제 연계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유남희 책임교수(전북대 기록관리학과)는 "이 포럼을 통해 전라북도 기술 창업에 포함한 청년창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고 에너지전환 분야, 실험실 창업 분야 및 다양한 청년 스타트업 등에서 사회적 경제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